

장수·전북현대모터스 '장수군의 날' 행사 성황

사과·한우 등 우수 농특산물 선택 장영수 군수 '명예 홍보대사' 임명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지난 22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 25라운드 경기 전북현대와 대구 FC의 홈경기에서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단장 백승권)과 '장수군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고 23일 밝혔다.

이번 '장수군의 날' 행사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장수 사과와 한우, 오미자 등 우수한 농·특산품을 선보이고 전북현대모터스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의장이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축행사를 진행했으며, 장수군 관내 6개 초등학교 22명 학생들이 선수입장 에스코스에 참여해 행사를 의미 더욱 풍성하게 했다.

장수에서는 이날 500여명 이상의 군민 응원단이 참여했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위해 풍문출입구에서는 장수사과즙, 오미자즙, 토마토즙 등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와 판매부스가 운영돼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기 전에는 오미자즙 3,000포를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관중들에게 나눠주고 하프타임에서도 이벤트를 통해 장수한우 세트를 증정하며 경기를 보



장수군은 지난 22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 25라운드 경기 전북현대와 대구 FC의 홈경기에서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과 '장수군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는 즐거움과 함께 참여하는 기쁨도 가득한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는 전북현대가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리그 1위를 견고히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이날 전북현대모터스 구단측으로부터 '명예 홍보대사'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장수군의 날 행사 공

동추진을 통해 군민들이 프로축구를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특히 장수군 관내 초등학교생들이 선수 입장에스코트 행사를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전북현대모터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원광대, 2018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식 거행

원광대학교가 오는 8월 31일 자로 정년을 맞는 교직원들에 대한 정년식을 김도중 총장과 교직원을 비롯해 퇴임자 가족,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교내 송산기념관 3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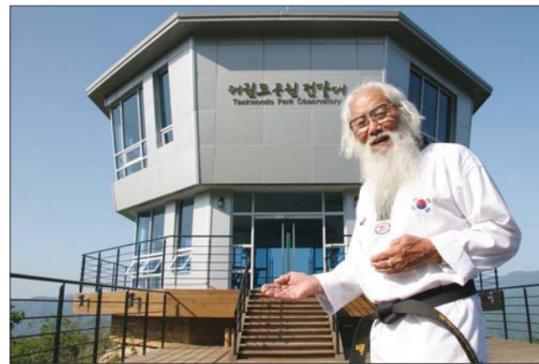
이번에 정년을 맞는 교직원들은 송순(가정아동복지학과), 성재환(경제학부), 선주선(취급속보석공예과), 김광재(미술과), 박월서(전기공학과), 한종현(한의대), 황충연(한의대), 박병립(의과대학), 이규행(의과대학), 홍기연(의과대학) 교수와 이운경(박물관), 김오봉(중앙도서관), 이미현(중앙도서관), 시정선(법학전문도서관) 선생 등 모두 14명이다.

정년자들은 훈포장 및 부총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으며, 원광대는 학교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쓴 정년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년식을 마련했다.

김도중 총장은 송공사를 통해 "오늘 정년에 이른 분들은 대학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해 오신 분들로서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이 비상하도록 여건을 다 지켰다"며, "학교 발전에 대한 조언을 되새겨 원광대가 아시아 중심대학으로 도약하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중 총장은 송공사를 통해 "오늘 정년에 이른 분들은 대학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해 오신 분들로서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이 비상하도록 여건을 다 지켰다"며, "학교 발전에 대한 조언을 되새겨 원광대가 아시아 중심대학으로 도약하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무주군민의 장 향토공익장에 태권도원 마스크트 배재숙씨 선정

무주군이 제34회 군민의 장 '향토공익장'에 설천면 배재숙 씨(86)를 선정·발표했다.

향토공익장은 공공사업과 사회사업, 봉사활동 등으로 군민복지 향상에 앞장서 온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80평생 지역의 애환과 발전을 몸소 겪어온 배재숙 씨는 설천면 소방대장과 태권도원 지킴이 등 일꾼을 자처하며 주민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배재숙 씨는 지난 10여 년 간 태권도 할아버지로 불리며 태권도원 유치와 성공적 조성, 전망대 지킴이, 태권도원 마스크트(백운도사)로 활동을 해오신 등 태권도원 활성화에 앞장서 여전히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인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발하는데 주력했다"라며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 제2회 무주반딧불축제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 | | | |
|-----------------------|-----------------------|-----------------------|-----------------------|
| 전주시 010-9845-4113 | 중앙지사 010-9389-6874 | 남원지사 021-3386 | 고창지사 563-6989 |
| 삼천지사 010-2333-4791 | 인후지사 246-6855 | 김제지사 547-8855 | 임실지사 010-9642-2725 |
| 서신지사 272-9417 | 순천지사 255-2404 | 완주지사 246-8855 | 진안지사 433-3084 |
| 호지사 010-9845-9355 | 광복지사 253-6844 | 남원지사 652-0365 | 정읍지사 538-3787 |
| | 군산지사 010-6789-0338 | 순창지사 653-0444 | 장수지사 010-3882-9157 |
| | 익산지사 859-9323 | 부안지사 010-2425-4182 | 무주지사 010-2300-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승우엔지니어링, 고창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고창군 고창읍에 소재한 (유)승우엔지니어링(대표 고상철)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2일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고창군에 전달했다.

(유)승우엔지니어링은 도시계획, 조경, 전기설비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고상철 대표는 "을 추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고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고창군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유기산 군수는 "폭염이 지나가는 여름 끝에 단비와 같은 성금은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나눔수록 행복이 커지는 것이고, 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 고창군을 만드는 데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유)승우엔지니어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창군민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북면, 태풍 '솔릭' 피해 예방 총력

정읍시 북면(면장 설재근)은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민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설재근 면장은 22일 태풍피해가 우려되는 북면 게이트볼장,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산사태 급경사지, 관내 저수지 및 하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재난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해 태풍과 관련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설재근 면장은 태풍이 폭염으로 힘들었던 우리지역에 단비만 내리며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태풍의 피해 상황에 대비해 전 면 직원에게 비상상황 체계를 구축해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으며, 주민들도 태풍진로에 관심을 갖고 재난에 함께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시, 태풍 앞두고 올해 첫 조생종 벼 수확

군산시는 지난 21일 서수면 축동리 일원 7,000여평방미터의 농지에서 올해 첫 조생종 벼를 수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수확한 벼는 수량성과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 조평벼로, 서수면 축동리 전업농 이준숙씨가 지난 5월 3일 첫 모내기를 실시한 후 111일만의 수확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속에서 이뤄낸 첫 벼 수확으로, 당초 26일에 벼베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제1호 태풍 '솔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당기게 됐다.

올해 첫 벼 베기를 시작한 서수면 축동리 전업농 이준숙씨는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자 모든 농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쌀을 수확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문은철 농정과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지속한 농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